

선생님의 가치

작성일: 2011년 10월 3일 새벽 2시 반

작성자: 배수빛

[137억년 이상 수고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성삼위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대상을 전도 관리 강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신학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너희의 귀한 것 귀한 정성 귀한 몸 갖고 내게 오너라
내가 귀히 받고
너희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 주리라

(주님, 저를 귀히 받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귀히 보는 것은
너희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것은 귀하다.
나의 것이 되지 못 하였을 때는
나와 무관할 때는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러나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나의 몸이 되었을 때
그는 나이니 얼마나 귀하겠느냐?

나의 사랑아.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값으로 따질 수 없구나.
나의 귀한 성에 초대된다는 것이
무한 가치구나.
영원 가치구나.

(네, 주님 영원 가치는 값으로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하니 너희 선생의 값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우주를 지구를 다 준다 한들
내가 누구를, 무엇을 택하겠느냐?
이 우주, 지구를 만든 목적을 이루었구나.

너희 선생을 낳았구나.
너희 선생을 얻었구나.
이 우주를 만든 보람을 안았구나.
그 성과를 얻었구나.
무익한 투자가 아니 되었구나.
큰 수확을 얻었구나.

(주님, 지금까지 지구에서 많은 의인들을 배출하지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요.)

이들은 다 과정 가운데 의인이요.
완성점의 온전한 자는 아니지 않더냐?
그때그때 어린아이 때
중학교 나이 때 고등학교 나이 때
성적이 우수한 자로 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나의 완성된 신부 나의 사랑의 대상체는 아니지 않더냐
도자기가 한 번 구워서는 완성품이 안 되고
별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그때마다의 완전한 자가 아니냐
이제 너희 선생은 질적으로 다른 형질의 소유자이니
성삼위의 지구 농사의
결실체요, 완성체요, 수확체이니
그 거둠의 기쁨이 무한이로다.
하늘나라의 경사이니
이러한 기쁨을 안겨다 준 자가 어디 있으리오.

그러한 자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십자가에 매단 자여
너희 의가 완전히 무너졌으니
주여 주여 하여도
나와 대적자가 되었으니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내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자들이여
너희의 의가 너희의 무지로 인해
너희에게 울무가 되고
너희에게 사망의 구덩이를 뚫으니
너희는 사망의 포로가 되어
시대 무지속의 상극세계의 주인이 되었구나.
내 성경에 그리 일렸건만
내 말귀의 소경들이여

어찌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너희 의를 세우더냐
너희 무지가 너희를 사망의 구렁이에 넣으니
그곳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리라.